

크리스틴의 이야기

연령대: 35~40세

직업: 마케팅 전문가

구사 언어: 영어/아랍어

37세의 레바논계 호주인 크리스틴에게 건강 관리는 일상의 최우선 과제이다.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조기 폐경기를 겪고 있는 그녀는 정기적으로 건강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그녀의 치료 과정에는 빈번한 일반의 진료, 전문의 의뢰, MRI 및 CT와 같은 진단 검사가 포함된다. 그녀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일반의에게 진료를 받는다.

“예전에는 본인 부담금 때문에 일반의 진료를 받을 때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라고 크리스틴은 설명한다.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면서 건강 관리를 지속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일반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없어짐에 따라, 그녀는 의사가 원하는 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일괄 청구 제도는 비용 걱정 없이 제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어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이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저는 모든 분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몸이 아플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도움을 구하시도록 권하고 싶어요.”

- 크리스틴



상세정보를 보려면 이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인근에서 일괄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를 찾으려면,
[health.gov.au/bulkbilling](https://www.health.gov.au/bulkbilling)에서 확인하세요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Disability and Ageing